

[기획특집]

‘새로운 표준어 정책의 모색’에 대한 토론문*

민현식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해례본에는 ‘國語’와 ‘邊野之語’라는 말이 있어 어느 정도 중앙어를 중심으로 한 표준어 개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표준어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애국계몽적 언어관을 가졌던 일제하 선배 학자들의 사전 편찬 경험을 거치면서 점차 표준어 개념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

다. 특히 북한의 문화어 개념이 대두되면서 표준어 개념은 이념적 성격을 띠기조차 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표준어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논의를 통해 오늘의 표준어 문제를 짚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제 김세중 박사의 발제문을 토대로 토론자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

* 이 토론문은 2004년 3월 5일 오후 2시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열린 표준어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이다. 기조 발표에 해당되는 김세중 어문자료연구부장의 논문에 대해 자세히 토론하고 있으나 편집 방향에 맞추어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1. 정의와 관련하여

표준어 :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선 개별 사항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교양 있는 사람이 쓰는 말이라는 규정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표준어를 못 쓰면 교양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어 방언 사용자를 교양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으로까지 보이고 방언 화자들을 잠재적 무교양인으로 전제하는 논법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양이라는 개념은 정의 내리기 어려운 비언어학적 용어로서 매우 애매모호한 개념이다. 최재서의 ‘교양의 정신’에서나 보이는 ‘교양-야만(무교양, philistinism)’의 근대적 이분법적 개념이 아닌가 한다. 이 규정은 언어가 의사소통의 기본 도구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는 의사소통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규정 전체의 구조와 관련하여

김세중 박사도 규정 전체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점에 동의한다. 특히 발음에 따른 2장과 어휘 변화에 따른 3장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3장에 나오는 것도 상당수는 발음 변화에 따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표준어 사정 대상의 유형 분류**가 우선되어야 한다. 표준어 사정 대상에 대한 유형 분류 연구부터 치밀하게 이루어져 단순 발음 실태 조사로 해결할 문제어, 문법 논리, 표기 논리, 어휘 의미 논리 등으로 해결

할 문제어 등을 구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무조건적 실패조사만이 능사는 아니다.

표준어를 (1) ‘으스대다-으스대다’처럼 발음 혼동어(변종어, 변이어)와 (2) ‘명계-우렁챙이, 옥수수-강냉이’처럼 어휘 혼동어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어 규정은 이러한 기준에 따른 배열이어야 한다. 현재의 표준어 규정은 이런 사례가 뒤섞여 있어 현재의 배치는 재고되어야 한다.

3. 혼동어들에 대한 현 표준어 사전의 등재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공감한다. 국어학적 성과의 극치가 사전학이라고 볼 때 우리의 국어학이 이러한 규범에 대해 충분한 논리를 제공할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증거이다.

수근거리다/수근거리다	간질이다/간지럽히다
아이코/아이쿠	팬스레/팬시리
어수룩하다/어리숙하다	

위의 / 표 왼쪽 사례만 표준어이어야 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비판하였듯이 국어학 지식은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결정에서는 자의적 결정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이를 반성하고 표준어 사정 원칙을 전반적으로 재조명하여야 한다.

또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표준어 사정 원칙에 등재되어 있는 말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

심술꾸러기/심술쟁이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여튼/여하튼
일일이/하나하나	장가가다/장가들다
좁처럼/좁체	중신/중매
차차/차츰	

4. 역양과 문법이 빠져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문법은 문법책

이 있으므로 표준어 규정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지 문법 형태(조사, 어미, 접사)를 중심으로 표준 형태를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현 규정은 이들이 뒤섞여 있다. 억양의 표준화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5. 현대 서울말의 취지에 어긋나는 말 즉 현재 쓰이지 않는 사어들이 많으므로 이들은 재고하여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

갓모/갈모	굴젓/구젓
말걸/말겇	물수란/물수락
밀뜨리다/미뜨리다	울력성당/위력성당

6. 언어 현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두루 쓰는 서울말로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들에 대해 지적한 것도 타당하다.

수눔/숫눔 (제7항)	수소/숫소 (제7항)
바람/바램 (제11항)	빌리다/벌다 (제6항) -기에/-길래

그러나 이 중에 ‘바람’은 ‘바라다’라는 기본형이 아직 쓰이므로 ‘바람’은 교육이 필요한 사례이다. ‘바램’으로 하면 ‘바래다’를 기본형으로 하여 ‘빛바래다’와 충돌한다. 이들은 단순 실태조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실태 조사가 다수결의 논리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언어에는 다수결을 초월하는 문법 논리와 불규칙의 현상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7. 표준어 규정이 개별 단어 사정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원리를 제시하는 표준어 규정이어야 하지만 맞춤법 규정과 달리 표준어 규정은 오히려 불규칙어, 변종어들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원리 제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개별 단어 사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8. 신조어 문제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질 경우 그 신조어를 표준어로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 규정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신어 중에 널리 통용되는 것은 표준어로 한다’라고 하는 수준의 정의가 가능할 텐데 이는 원론적 규정이라 무의미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자칫 신어를 널리 알리는 것으로도 오해받을 수 있고 덜 익은 신어가 등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조어가 정착어가 되려면 한 세대는 지나야 한다는 점에서 신조어가 다 사전에 올라야 한다는 사전 만능주의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일제 때 ‘모던 낱, 모던 뽀이’가 이종극의 외래어 사전(1939)에 나오지만 현재는 ‘플레이보이, 플레이걸’이 유행하는 것을 보면 신조어 특히 유행어들 중에 사전에 오를 것들은 즉시 등재가 어렵다.

대체로 유행어를 제외한 시사용어나 전문용어로서의 신조어는 등재될 수 있는데 이들을 모두 등재하기란 쉽지 않다. 시사전문용어사전이라는 전문가용 틈새시장에서 할 일이라 하겠다. 국어연구원이 모든 전문어를 다룰 수 없듯이 각계에서 나오는 모든 신조어를 모두 사정하고 등재하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현재 신어 조사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으므로 신어 보고서를 <신어 말뭉치>라는 DB를 구축하여 어느 정도 사전 체제 전단계로 구축하고, 살아남는 신어들을 장차 사전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기적 점검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과성 신어 조사가 되지 말고 <신어 사용 추적 연구>를 하여 신어들의 수명과 사회언어학적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 기준을 통과한 신어만 표준어로 등재할 필요가 있다. 모든 어휘는 다 신어 시기를 거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어에 대한 관찰 연구는 필요하다.

9. 표준 발음법

효과1(效果)[효:~] ①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드러나는 보람이나 좋은 결과.

효과2(效果)[효:~] 【운동·오락】 유도 경기에서 내리는 판정의 하나. 기술이 가장 미미하게 걸렸을 때 내리는 판정이다.

효과의 경우는 유도 용어와의 구별을 고려한다면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 표준 발음은 상당수의 변이형이 있어도 사전은 원칙으로 제시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복수표준어를 만들었듯이 복수 발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국민에게 음운 규칙의 보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수 발음은 복수 표기와 달리 부담되지 않는다. 가령 ‘효과, 김밥, 인사말’ 등의 혼동어 발음이나 ‘가운, 서비스, 버스’ 등의 외래어 발음에 대해 복수 발음을 허용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

10. 실태 조사가 표준어 사정을 대신할 수 있는가?

발표자의 글에 다음 부분이 나온다.

“..... 표준어 사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표준어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표준어 사정이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둘 이상의 변종이 존재하는 단어에 대해서 각각의 변종 중에서 어느 것이 얼마나 더 많이 쓰이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일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만 하고 표준어 사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실태 조사의 대상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이 궁금해 하는 혼동어 중심일 것이고 그 결과가 표준어나 표준 발음 사정에 참고되거나 표기나 발음 규범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국적 실태조사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표준말을 정하는 것은 서울말 중심으로 정하는 일이므로 서울말 실태 조사가 더 중심이어야 한다고 본다. 부수적으로 전국적 방언 조사이거나 전국적 언어 실태 조사라면 타할 것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서울말 중심의 표준어 사정을 목표로 한다면 서울말 중심의 실태 조사로도 족하다.

표준어 사정의 자의성을 막기 위한 언어 실태 조사는 분명 필요하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이다. 방법론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직관 조사로나 100명의 표본조사로 한 것과 1천명, 1만 명 조사한 결과가 오차 없이 별 차이가 없다면 인력과 재정 낭비일 수 있다.

실태조사는 조사일 뿐이다. 문자의 보수성을 무시하고 실태조사만으로 표기 규범을 바꿀 수는 없다. ‘바램’이 많고 ‘-구’가 많으며 ‘꽃이[꼬시]’가 많아도 문법적 이유나 문자의 보수성 원리 때문에 그 어떤 다수결로도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쟁점이 되는 혼동어들의 수집과 유형 분류를 통해 실태조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여 논해야 하며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만 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것은 그 어떤 실태조사를 하여도 언어 구조적 문제이므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예들이다. 발음 실태를 초월한 문법적 원리나 어휘 의미론적 이유들이 있어서 혼동이 되는 것들이 많으므로 그런 경우는 제때 표준형태를 즉시 제시해주는 역할만이라도 잘 하면 된다.

(1) 파생부사 ‘-이/히’ 규정

‘-이/히’ 규정은 “분명히 ‘이’로만 나면 ‘-이’로 적고, ‘히’로만 나면 ‘-히’로 적으며 ‘이’나 ‘히’로 나면 ‘-히’로 적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음이 분명히 ‘-이’로 나는 것, ‘-히’로 나는 것, ‘-이/히’로 헷갈리는 것의 세 경우를 ‘분명히’ 구별하는 기준은 개인차가 있어 이 규정은 매우 애매한 규정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실태 조사를 하여도 해결책이 없다. 약속을 명확히 하고 문자 교육의 특성에 따라 시각적 인지 교육으로 해결할 뿐이다.

- ① 그옥이, 깊숙이, 뻑뻑이, 수북이, 소북이, 자옥이, 시무룩이
- ② 가득히, 머쓱히, 똑똑히, 넉넉히, 솔직히, 툭툭히

(2) 도우미, 돌보미, 지키미, 깨우미 - 도움이, 돌봄이, 지킴이, 깨움이

이들의 표기 혼동이 많이 보이는데 ‘도우미’는 대전 엑스포 박람회 이래 유행된 말이며 심지어 한자어 ‘道友美’로 적는 사람도 있다. ‘돌보미, 깨우미’ 등은 ‘도우미’에 유추되어 신조어로 쓰일 뿐 사전 등재어는 아니다. 새마을호 기차에는 잠든 사람을 위해 내릴 시간을 알려 깨워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깨우미’로 표기되어 있다.

반면에 ‘지킴, 지킴이’는 사전 표제어로 집안이나 어떤 터를 지키는 신령한 동물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민속 용어인데 요즘은 ‘교통 지킴이, 환경 지킴이’ 따위의 신조어가 쓰인다. ‘지킴이’처럼 <표준> 사전에 등재된 예로는 ‘깎끔이’가 있다.

깎끔-이 「명」 모양새나 숨씨가 깨끗하고 매끈한 사람을 이르는 말.

신조 유행어이든 민속어이든 정확한 표기는 요구된다. 그런데 위 단어들에 대한 표기는 들쭉날쭉이다. 이들은 <표준> 사전에는 ‘도우미’와 ‘지킴이’로 올라 있어 맞춤법 원리상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지킴이’도 <한글><금성>은 ‘지킴’만 올렸다. 맞춤법 20항에 ‘명사 뒤에 ’-이‘가 붙어 된 말은 명사 원형을 밝힌다(바둑이, 삼발이, 네눈이)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본다. 단지 이 규정에서 ‘명사’라고만 하지 말고 명사형도 포함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킴이, 도움이, 돌봄이’가 맞다. 이런 문법적 원리 문제가 개입되는 것은 발음 실태조사의 문제가 아니므로 문법 원리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므로 그것을 결정하는 표준어 사정은 필요하다.

(3) ‘수놈, 수소’

우리는 ‘수-’의 옛말이 ㅎ 종성체언 ‘슁-’가 변한 ‘숫-’이었고 아직도 발

음에는 ‘숫-’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존중하는 쪽으로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 ㄱ.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숫-’을 기본형으로 한다.
숫나사, 숫늬, 숫사돈, 숫소, 숫은행나무, 숫양, 숫염소, 숫쥐
- ㄴ. 뒤에 오는 단어가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나는 경우는 ‘수-’로 한다.
거센소리: 수총각, 수강아지, 수캐, 수탉, 수펄, 수평아리
된 소 리: 수펄, 수까마귀, 수뺨꾸기

아울러 문제어 사정 체제와 관련하여 기존 등재어들도 오류 접수를 인터넷으로 받아 인터넷상으로 수정 공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령, 표준국어대사전의 ‘잘살다’는 뜻풀이가 부족한 경우라 보충이 필요하다.

(4) 잘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잘입다, 잘나다, 잘되다, 잘빠지다, 잘하다’ 등의 예처럼 ‘잘살다’도 “부유하다”의 뜻으로 특수화 의미이면 합성어로 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나온다.

잘살다: 부유하게 살다.- 같이 거쳐하는 여러 동무들은 모두가 잘사는 부호의 딸들만 같아 보였다. 《박종홍, 새날의 지성》/그동안 고생하고 일한 것은 촌에서라도 언제든지 돈을 모아 가지고 호화롭게 잘살자는 뜻이었다.《전영택, 소》

그런데 금성판 국어대사전은 ‘①부유하게 살다, ②탈 없이 지내다’로 나온다.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은 ①만 인정하였다.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만일 ‘부유하다’의 문맥이 아니라면 ‘잘 살다’로 띄어쓰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①②에 따라 구별하여 띄어쓰기를 하라는 것은 의미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할 때 언중에게 어려운 규범으로 비치므로 ②의 뜻은 추가해야 할 것이다.

(5) 트락

‘트락’은 시어에서 잘 쓰인다. 김재홍 편 ‘시어 사전’에도,

트락: ‘뜰’의 시적 표현

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일반 사전에는 이런 기술이 없다. <한글><금성>은 ‘뜰’의 사투리로 설명하며 <표준>도 ‘뜰’의 북한어라고만 하였다. 이는 북한어일 뿐만 아니라 남한어로도 표준어로 올려야 할 것이다. ‘버리지’, ‘서방질/화냥질’, ‘오색 잡놈/오사리 잡놈’ 같은 것도 표준어 규정에서 표준어로 보았다면 ‘트락’은 표준어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늦여름, 초가을 추수철이 되면 ‘곡식이 영글다’라는 말을 잘 쓴다. 그러나 과거에 ‘영글다’는 사투리이고 ‘여물다’만 표준어라고 하였으나 <표준>에 와서는 ‘영글다’가 시어로 익히 쓰이는 것을 인정하여 표준어로 올렸다. 이런 점에서 ‘트락’도 복수표준어 정도의 자격을 부여할 만하다고 본다.

(6) 제끼다

‘제끼다’(일을 잘 해 제긴다)를 <한글> 사전은 표준어로 보았다. 그러나 <표준><금성> 사전은 ‘젓히다’의 방언형으로 보았는데 그렇다고 ‘젓히다’항에 가 보면 ‘일을 잘 해 젓힌다’와 같은 용법이 있지도 않다. 우리는 이 단어 용법이 잘 쓰이므로 <한글> 사전처럼 처리함이 좋다고 본다.

(7) ‘살맛’과 ‘죽을 맛’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살맛’은 단어로 등재되어있고, ‘죽을 맛’은 그렇지 않다. <금성판 국어대사전>에는 ‘살맛. [명].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로 등재되어 있지만 ‘죽을 맛’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죽을병, 죽을힘, 죽을상’까지 당당히 올라 있다. 그렇다면 ‘죽을맛’도 올릴 만하다. 반의어로 보더라도 합성어 ‘살맛’이 등재되었다면 합성어로 ‘죽을맛’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살맛’이 합성어라 반드시 반의어 표현도 당연히 합성어가 되어야 한다고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큰손, 큰일’은 사전에 올라 있지만 ‘작은손, 작은일’은 올라 있지 않은 것이 그런 예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죽을맛’은 ‘세상 살아가는 데 힘든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살아가는 데 힘들거나 어려움을 표현하는 말’로 뜻풀이하여 합성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합성어 처리는 띄어쓰기 문제와 맞물린 것으로 표준어 사정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띄어쓰기는 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미등재어에 대한 처리가 시급한 현안이다. 가령, ‘마음속, 머릿속, 뺨속, 뺨속’은 사전에 올라 있지만 ‘혼잣속, (개미의) 념쌩길’처럼 사전에 미등재된 것은 합성어로 붙여 써야 하는지 아니면 미등재어이니 句로 보아 띄어야 하는지 언중은 혼란스러우므로 이런 미등재어 사례들은 합성어 여부를 국어연구원에서 신속히 판정하여 인터넷 사전에 공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을 위한 실태조사는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는 실태조사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여 고도의 문법 논리, 표기논리로 약속할 사항이므로 표준어 사정을 단순히 포기하는 것은 언어정책의 직무유기로 오해될 수 있다. 판정하지 않고 실태조사만 제시하는 것은 정책연구기관의 본질과 다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어 사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고려하기 바란다.

- 1) 문제어 이의, 질문 접수
- 2) 국어연구원의 규범부에서 기초 자료(소규모 실태) 조사, 시안 마련
- 3) 홈페이지에 시안을 일반에 공시, 여론 수렴,
인터넷 국어 사정 심의단(학자, 교열전문가, 교사 등)에 자료 심의
위촉, 여론 수렴
- 4) 여론 최종 수렴 후 최종안 작성, 공시
- 5) 국어심의회 회부(사전에 위원들의 재택 검토 회부)²⁾, 심의, 최종 의
결 공시
- 6) 인터넷 사전에 반영 공개, 표준사전 개정판 출판 시 반영

2) 현재 국어연구원 내에서 외래어 순화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 이런 자료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 재택 심의를 하게 하고 있다.

국가 표준어사전 편찬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민간 사전 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혼동어나 비혼동어나의 기준으로 보면 출판사 사전들이 비혼동어들에 대해서는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혼동어들의 경우이다. 이 경우는 사전마다 다른 경우가 많아 왔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국가적 권위의 사정이 요구된다. 국어연구원은 앞으로 혼동어 사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국가 사전이 나왔어도 여전히 혼동어들의 기술, 사전 오류 시비 등의 불완전한 기술은 여전히 상태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국어연구원은 혼동어와 같은 문제 어휘 사정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하여야 한다.

11. 표준어 규정에 잠입한 비표준어들

표준어 규정(1988)은 1항-26항에 표준어로 볼 자격이 있는 것들이 올라 있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비속어로 볼 것들이 버젓이 올라 있는 경우가 많다. 표준어 규정의 첫 용례부터 표준어로 보기 어려운 ‘끄나풀’이 제시된 것은 유감이다. 즉, 표준어 규정의 원리 조항인 1, 2항 다음에 나오는 본문적인 제3항의 첫 예로 소개된 ‘끄나풀’은 비속어에 속한다. 그런데 이런 비속어류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것이 현 표준어 규정이다. 다음은 그 목록이다.

- 3항 털어먹다(재산 따위를 몽땅 잃다)
- 8항 뺨정다리
- 9항 발목쟁이
- 10항 허우대 : 뒷사람에게 쓰기 어려운 말이고 비하적 의미가 나타난다.
- 11항 시러베아들(→ 실없는 사람), 튀기(→혼혈인, 혼혈아)
- 14항 장사치
- 15항 궁상떨다: ‘떨다’는 비속한 표현이다. ‘궁상스럽다’가 무난하다.
- 16항 거짓부리(→거짓말)

17항 뺨따귀, 빼기다(誇), 상판대기, 오금팽이, 까막눈

19항 나부랭이

21항 늙-다리(늙은 사람), 죽대기

24항 까몽개다(얼굴 따위를 짓몽개다. → 짓몽개다), 코주부

25항

농지거리(→ 농) 뒤통수-치다 빙충이(뜰뜰하지 못하고 어리석다)

쇠고랑(→수갑)

술고래(→술꾼)

얇은뱅이저울(→ 얇은 저울: 이 경우는 ‘얇은 저울’ 대신 ‘얇은뱅이 저울’을 표준어로 하여 장애인 차별 표현이다. 오히려 잘 안 쓰이더라도 선언적으로 ‘얇은 저울’로 순화하도록 제시했어야 한다)

암내(→ 결땀내: ‘암내’는 암컷 몸에서 나는 냄새, 체질적으로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라는 두 뜻이 있으므로 ‘결땀내’를 차라리 택했어야 하지 않을까)

짓고땡(도박 용어)

26항

게을러빠지다/게을러터지다(‘빠지다, 터지다’는 비어적 강조 보조용언이다)

귀통머리/귀통배기(‘귀통이’의 비어라고 규정 비고란에 해설까지 달아 놓고 표준어 목록에 넣었다)

극성떨다/극성부리다(‘떨다, 부리다’도 비어적 표현이다. → 극성스럽다)

볼-따구니/볼-통이/볼-때기(볼)”와 “서방-질/화냥-질(자기 남편 이외의 남자와 동침하는 것)”

까까중/중대가리(‘까까중이’는 비표준어라고 비고란에 해설해 놓았음. 우리는 이 모두 비표준어로 보아야 한다. 표준어는 ‘중, 스님, 승려’일 뿐이다)

밭모가지/밭목쟁이(→ 밭목)

벌레/버리지

불따구니/불통이/불때기(→불)

서방질/화냥질

애꾸눈이/외눈박이

오사리잡놈/오색잡놈(온갖 쓸데없는 것이나, 그런 짓을 하는 사람)

철따구니/철딱서니/철딱지(→ 철)

위 예들에서 비속어에 가까운 것들이 왜 표준어 규정에 표준어 자격으로 올랐는지 아무리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표준어를 교양인의 말이라고 정의한 표준어 규정의 총론이 무색하므로 시급히 이들 용례들은 제거하여 부분 수정을 하여야 한다.

12. 맺음말

표준어 개념은 언어 상황마다 다르므로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른 나라 사정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도 안 된다. 단일 민족 국가어인 한국어에 대한 언어 정책과 다민족 국가인 미국의 언어 정책과 다언어국가인 인도, 인도네시아의 언어 정책이 같을 수 없다. 미국은 이민자가 다수인 다민족 구성원의 영어 습득이 교육에서 중요하고 국민적 독서, 작문 능력 향상이라는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거시적 언어정책이 우선적으로 중시되다 보니 단어 표기나 발음 관련 정책과 같은 미시적 언어정책은 후 순위가 되고 민간 사전 규범 체제라는 자율 체제로 이관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족어를 먼저 습득하고 5-7세의 공교육 입학시 비로소 지역 공용어나 국가 표준어를 배우게 되는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우리가 같을 수 없다. 우리의 상황에 맞는 과학적 표준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